

여름철에는 타이어 공기압을 더 높여야 하는 이유

여름철에는 타이어 관리에 특히 더 신경을 써야 한다. 고온으로 인한 타이어 파손이 증가하는 계절이기 때문이다.

여름철 타이어 적정 공기압

타이어 펑크 사고는 85° F 이상의 날씨일 때 특히 증가한다. 그 이유는 '스탠딩 웨이브 현상' 때문이다. 스탠딩 웨이브 현상이란 주행 중 타이어 접지부에 열이 축적돼 변형이 나타나는 현상을 뜻한다. 85° F가 넘어가는 더운 날씨에는 노면에 160° F도 정도의 고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스탠딩 웨이브 현상이 자주 일어난다.

스탠딩 웨이브 현상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타이어 공기압을 평소보다 10% 정도 높여 주어야 한다. 특히 스탠딩 웨이브 현상은 50마일 이상의 고속으로 주행 할 때 발생하기 때문에, 고속 주행을 앞두고 있다면 타이어 공기압을 높여주는 것이 좋다.

타이어 적정 공기압은?

타이어의 적정 공기압을 알아보려면 타이어 측면에 표시된 숫자를 확인하면 된다. 예를 들어 타이어 측면에 'MAX.PRESS.300kPa(44psi)' 라고 표시되어 있다면, 그 타이어가 수용할 수 있는 최대 공기압 수치는 300kPa(44psi)인 것이다.



일반적으로 타이어 적정 공기압은 최대 공기압의 80% 정도이다. 따라서 최대 공기압 수치가 44psi인 타이어를 사용하고 있다면 36psi 정도가 적정 공기압이다. 또는 운전석 쪽 문에 부착돼 있는 타이어 표준 공기압 표, 차량 취급 설명서의 '차량 정보' 를 확인하면 손쉽게 차량에 맞는 적정 공기압 정보를 알 수 있다.

공기압은 적정한 수치를 유지하는 게 가장 좋지만, 일반적으로 공기압 과다보다는 공기압 부족이 더 위험하다. 타이어 공기압이 과다한 경우에는 편마모 발생으로 인한 타이어 성능 저하를 일으키지만 타이어 공기압이 적정 압력보다 낮으면 자동차 연비와 제동력을 떨어뜨리며, 심각한 경우 타이어 파손까지 초래할 수 있다.

타이어 공기압 자가 점검 팁

타이어 공기압은 육안으로도 대략적인 점검이 가능하지만 한계가 있다. 그래서 더 꼼꼼하게 자가 점검하고 싶다면 시중에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막대식 압력 게이지, 디지털 공기압 게이지, 전자식 압력 게이지 등의 압력 측정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점검을 하기 전에는 일단 차량 내 무거운 짐을 모두 내리고, 타이어 공기 흡입구 밸브 캡을 제거해 압력 측정기를 꼽은 후 약간의 힘을 줘 압력 측정기 계기판의 수치를 확인하면 된다.

타이어 공기압은 주행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낮아지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좋다.



자동차 냉각수 점검, 이렇게 하세요!

냉각수는 자동차 실린더 주변을 돌며 엔진의 열을 식혀주는 액체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냉각수는 증류수, 부동액, 방청제 등의 혼합으로 이루어진다. 부동액이란 액체의 어는점을 약 -51°C로 내려주는 액체이고 방청제란 녹을 방지하는 화학물질이다. 금속 재질의 냉각 시스템이 녹슬거나, 추운 겨울에 냉각수가 얼어붙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냉각수에 부동액과 방청제 등을 첨가하는 것이다.

냉각수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오버히트(Over Heat)', 즉 엔진 과열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오버히트가 발생하면 운전 중 갑자기 출력이 떨어

지거나 엔진룸에서 수증기가 솟구치는데 이때는 침착하게 자동차를 그늘진 곳에 주차시키고 응급조치를 해야 한다.

오버히트가 발생했다면 일단 에어컨은 끄고 시동은 끈 상태에서 엔진이 식을 때까지 잠시 기다린다. 그리고 보닛을 열어 자연통풍을 시켜준 뒤, 계기판의 온도 게이지가 정상 범위를 가리킬 때 시동을 끈다. 이후 라디에이터 마개를 열어 냉각수의 양을 확인하고, 부족할 경우 냉각수를 채워준다.

냉각수 보충법

냉각수의 적정량은 냉각수 보조통에 표시된 'F' - 'L' 눈금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F는 'Full' 을 의미하고 L은 'Low' 를 의미하므로 F눈금과 L눈금 중간 정도 양의 냉각수를 넣어준다.

만약 냉각수 양이 부족하다면 엔진룸에 위치한 라디에이터 마개를 열어 냉각수를 보충해주는데 라디에이터 마개를 열 때는 주의해야 한다. 엔진이 식지 않은 상태에서 라디에이터 마개를 열면 뜨거운 수증기와 물이 튀어나와 화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라디에이터 마개는 엔진이 충분히 식었을 때 개봉하되, 젖은 수건이나 두꺼운 천 등을 이용해 마개를 누르면 서 천천히 열어야 한다.

냉각수 대신 물을 넣어도 될까?

냉각수를 보충할 때는 같은 계열의 냉각수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미처 준비하지 못했다면 냉각수 대신 물을 사용해도 괜찮다.

하지만 모든 종류의 물을 다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우물, 하천 등의 물처럼 염분이나 산을 포함한 물은 냉각계통을 부식시키므로 냉각수 대용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 또한 미네랄 성분이 포함된 시판용 생수도 차량 부품을 부식시킬 수 있다.

냉각수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은 수돗물, 필터로 정화된 정수기 물, 증류수 등이다. 적절치 않은 물을 보충하면 오히려 자동차 냉각 계통을 손상시킬 수 있다.

밝은 미소, 건강한 치아

Implant
~~\$1700~~ → \$999

Implant
Free Consultation

Exam
X-ray
Cleaning \$35

Crown
~~\$500~~ → \$400

잇몸치료
~~\$600~~ → \$400

틀니
~~\$1200~~ → \$850



Dr. Seong Hoon Cho
DDS

각종 보험
메디케어(PPO) 환영

KMC Dental Group

Irvine

Tel: (949)253-8300
2700 Alton Parkway #225
Irvine, CA 92606

L.A.

Tel: (323)660-2005
3755 W. Beverly Blvd. #200
Los Angeles, CA 90004

Hacienda Heights

Tel: (626)333-3000
16388 Colima Rd. #201
Hacienda Heights, CA 91745